



15일

대만 성운대사 해인사서 법문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고승 대만 불광산사 성운(사진)스님이 해인사에서 한국 불자들이 대상으로 법문을 펼친다.

법전 조계종 종정 예방·통도사 방문 참배 해인·불광산사 정기문화교류 협약 체결

성운스님은 9월 13일 입국, 서울 불광산사주지 의인과 해인사를 참배한 뒤, 조계종정 법전스님을 예방하고 법석에 등단하게 된다. 성운스님은 15일 오후 통도사를 참배한 후, 16일 일본 후지산 본사에서 열리는 국제 종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계획이다.

20여년 전부터 세 차례 방한했던 성운스님은 통도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인사 불교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바 있으며, 구룡사 부처님 집안식에도 참석하는 등 한국 불교와는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지난해 달라이 라마의 스승으로 유명한 티베트의 링 린포체를 초청, 세계적인 스승을 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 해인사는 이번 법회에서 해인사와 불광산사의 정기적인 문화교류를 위한 협약서도 체결할 계획이다. (055)931-100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대만 불교의 정신적 지주인 성운스님은 세계 각지에 200여개의 불광산사 분원을 설립하고 100여개의 국제불교 협회 지부를 통해 '인간불교'의 이상을 실천하고 있는 고승이다.

성운대사는 누구?

세계 각지에 200여개 불광산사 분원 건립 4개 종합대학·불교TV·의료원 등 운영

1927년 중국 강소성 강도(江都)에서 태어난 스님은 12세때 의흥(宜興) 대가사에서 지개(志開) 법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1941년 서하산(棲霞山)에서 비구계를 받고, 서하학원, 초산(焦山) 불산불학원에서 수학한 뒤 임제종 48대 법맥을 이어받았다. 이후 백담초등학교 교장, <노도월간(怒濤月刊)> 주간, 남경 화장사 주지를 역임했다. 1949년 대만으로 건너온 스님은 1952년 의란 처사에 염불회, 흥법단 등을 조직하고 포교

구소, 불교신문진영관, 불광정사(양문원), 대자육유원(고아원), 불광출판사, 불교진료소 및 보문중·고등학교 등의 포교 및 복지기구, 교육기관을 설립했다.

1991년 타이베이 국부기념관에서 불광협회를 창립, '인간불교 및 인간정도' 건설을 발원했다. 불광사는 4개의 종합대학(남부대학, 불광대학, 미국 서래대학, 호주 남천대학)과 13개의 불교대학, 불교위성TV와 불교일간지(인간복보), 불광의료원, 22개의 도서관, 8개의 미술관 등 단일 사찰로는 세계 최대의 포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의 기초를 닦았다. 스님은 1967년 고승현 대수향에 불광산을 세우고 수산불교학원, 중국불교연합회 지부를 통해 '인간불교'의 이상을 실천하고 있는 고승이다.

천성산 관동반대 투쟁수위 높여

부산 시민종교대위, 조직정비·홍보 강화

금정산 고속철도 관동반대 운동을 벌여오던 금정산·천성산 시민종교대책위와 범어사 대책위가 26일 연석회의를 갖고 조직 외연을 확대하고 투쟁 수위를 높여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시민종교대책위는 지울스님이 배제된 가운데 노선재검토위 참여 등 정부와의

협의를 찾기 위한 활동에 주력해 왔으나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구자상 처장과 범어사 도관스님, 선재스님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시민종교대책위의 조직 재정비와 대시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 '금정산 천성

산 고속철도 관동노선에 대한 제 시민사회단체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노무현 대통령은 공약으로 국민과 약속한 관동노선 백지화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국고낭비와 환경파괴의 주범인 기존 관동노선을 폐지하고 친환경적인 대안 노선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향후 집행위원회의를 거쳐 금정산 관동노선 불합리성 대시민홍보, 임대 버스를 이용한 구별 홍보 및 서명운동, 법적 투쟁, 10만인 염서보내기, 금정산 체력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대구U대회 이모저모

● 대구종단협의회(회장 지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교관은 31일 폐막법회를 봉행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불교관은 폐막일까지 연인원 1,000여명의 외국 선수들이 다녀갔다. 대구불교종단협의회 의장 지성스님은 폐막법회에서 자원봉사활동 등을 펼친 한마음선원 신도회, 대구 경북포교사단, 대불련 등에게 감사

해 한국불교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혜계)소속 청년회는 24일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불교관에서 20여명이 외국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등만들기 시연회를 열었다.

● 불교, 천주교, 기독교 청년들이 합동으로 북한팀 응원전을 가졌다.

외국선수 1천여명 불교관 방문...31일 폐막법회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연등만들기 시연 큰 인기 불교·천주교·기독교 청년회원들 북한팀 응원

장을 수여했다. 또한 선수단 및 임원의 사찰 방문도 잇따랐다. 지난 28일 자크로게 IOC위원장, 박상하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집행위원장 등이 대구지역 대표사찰 통도사를 방문, 주지 지성스님과 차담을 나누었다. 이외에도 천태종 대성사가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스리랑카, 케냐 선수단 등을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 초청

지난 23일 대한불교청년회 회원 50여명을 비롯한 한국기독교청년회와 가톨릭청년회 회원 등 100여명은 북한과 네덜란드의 남자배구 경기가 열리는 대구체육관에서 종교를 떠난 공동 응원전을 펼쳐 화제가 됐다.

3개 종교 청년합동응원단은 "우리는 하나다", "오! 통일코리아" 등을 외치며 아리랑응원단과 호흡을 맞췄다. 박원규 기자 bak09@buddhapia.com



◇대불청 회원들과 기독교, 천주교 청년들이 북한팀 합동응원전을 펼치는 모습.

U대회 근무 불자경찰관 트럭에 치여 순직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상근무를 하던 한 불자경찰관이 순직해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8월 24일 새벽 2시경 대구서부경찰서 교통지도계 장정현 경장(35)이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만취 상태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1톤 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순직 장 경장은 서부경찰서법무회 회원으로 34년간 경찰에 몸담아 아버지와 함께 3부자가 모두 신심 돈독한 불자인 것으로 드러나 지역 불교계의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장경장의 장례는 8월 26일 서부경찰서장장으로 치러졌으며, 통사 포교국장 진오스님, 사회국장 덕현스님, 서부경찰서 정홍식 서장 등 1,0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서부경찰서법무회 김덕수 회장은 추도사에서 "고인의 고귀한 뜻에 따라 우리사회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인 학살피해자 위로 천도제

제15회 평화인권예술제 거창서 열려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제 모습.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제 15회 평화인권예술제가 23일, 24일 거창에서 개최됐다.

평화인권의 밤, 추모제 부대행사 등으로 꾸며진 이번 평화인권예술제의 하이라이트는 추모법회, 그 중에서도 고인의 넋들을 위로하는 대구도 천도제였다. 거창군사암연합회와 거창천도제추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영호강 둔치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이날 천도제는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 거창사암연합회 회장 심우스님 등 40여명 스님들의 집전으로 봉행됐다.

천도제에 앞서 군청앞 로타리 아리랑을 중심으로 종교인, 전교조, 민족예술인들이 과거의 잘못된 역사

를 참회하는 삼보일배를 갖고, 양생극락과 국민대인을 위한 불교의식 연등바라춤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김지하 시인을 비롯 유가족, 군민 등이 참석했으며, 발인제, 지성승무, 심우성 1인극 등이 공연됐다.

천도제를 주관한 심우스님은 "불교가 앞장서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면, 밝고 바른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화인권예술제는 각 단체들이 마련한 예술제, 길게그린, 솟대, 오방탈 전시 등의 부대행사가 눈길을 끌었다. 또한 평화인권의 밤에는 평화인권문학상, 놀이패 한두레 마당극, 가수 안지환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돼 거창 군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천미희 기자

화엄경독송회 창립

동화사, 둘째 토요일 모임

지난 하반기 기간동안 화엄논강에 참여했던 불자들이 동화사에 모여 '화엄경독송회'를 창립했다.

8월 23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창립식을 가진 화엄경독송회는 향후 정기독송모임을 통해 그동안 진행했던 대강백스님들의 화엄논강

설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화엄경의 대중화를 위해 진력하게 된다.

이날 창립식에서 동화사신도회장 김상수씨가 화엄경독송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박원규 기자

지울 스님 3천배기도 응원

토요일마다 환경마라톤

고속철도 천성산 관동반대를 위한 지울스님의 3천배가 11일째를 맞은 23일, 부산시청 일대를 달리는

환경마라톤이 열렸다.

천성산환경보존대책위원회와 (사)대불청 부산지구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대불청 부산지구 회원, 초록의 공명 회원 등 50여명이 생명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지울스님의 3천배 기도에 뜻을 보탤다.

이들은 'SOS 천성산이 아파요'라는 단테 티셔츠를 입고 홍보 전단지과 브로치를 나눠주며 고속철도 천성산 관동의 문제점을 알렸다. 천미희 기자

범어사·마하사 소장 성보

22건 부산시문화재 지정

부산시는 최근 문화재 위원회를 열고 범어사 사천왕도, 범어사 제석신중도, 범어사 관음전 백의 관음보살도, 마하사 현왕도 등 6건을 시유 문화재로 지정했다. 또 범어사 아미타극락회상도, 범어사 바다, 마하사 응진전 석조나한상 등 17건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했다. 천미희 기자

김천관음사 지장탱화 조성모연문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중생의 일체고액을 떨하고자
대원본존 지장보살의 대원력을 담은
'지장탱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선망조상 왕생극락 발원과 현생의 본전을
일구는 인연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 점 안 식 : 2003년 10월 13일 월요일 (음력 9월 18일) 오전 10시
- ◆ 온라인 접수 : 계좌번호 국민은행 60421-0642-253 (예금주: 안지훈)
- ◆ 문의처 : 전 화 054)439-2874 / FAX 054)439-3314
휴대폰 011-510-5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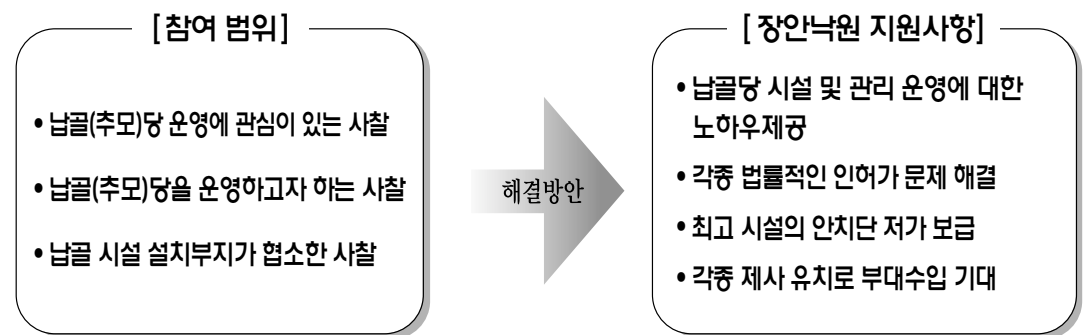
경북 김천시 황금동 68-42

대한불교 조계종 **김천관음사**
주지 지훈 합장

납골당 설치 및 운영방법 안내

사회문제로 대두된 묘지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화장 장려 정책'이 효과를 보게 되어 대부분 국민들이 화장 문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정함으로써 점차 화장을 하는 수요가 늘어나지만 아직 납골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탓에 납골 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납골문화발전과 사찰 납골당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장안낙원에서는 획기적인 "사찰 납골 활성화 사업"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초기 기획에서부터 납골시설 허가, 설치공사, 신도확보, 납골당 운영까지 책임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031)901-1954, 017-755-1954, 011-276-2135

■ 주 최 : 장안사 장안낙원 ■ 협 력 : 한국납골문화연구원